

대구주보

연중 제26주일, 이민의 날
2020. 09. 27. (가해) 제2234호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마태 21,29)



‘두 아들의 비유’, 안드레이 미로노프, 2012년, © CCASA4.0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을



선목학원 사무국장 | 이종현 요셉 신부

오늘 전례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에서 에제키엘 예언자는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의인일지라도 불의를 저지르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일지라도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목숨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 ‘공정과 정의의 실천’이 중요함을 예언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한 두 아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얘기에서, 맏아들은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는 아버지의 명에 “싫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라고 대답은 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다. 결국 진정으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한 사람은, 대답은 “가겠습니다.”고 해 놓고 가지 않은 아들이 아니라, “싫습니다.”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간 맏아들입니다. 그저 ‘말로만의 대답’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이 우리 신앙의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제1독서와 복음은 우리들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함을, 또 ‘그저 말만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이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신앙의 삶은 그냥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증거 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말이나 입으로만 우리 신앙의 삶이 증거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앙의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매일매일 충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4분의 3이 지나간 셈입니다. 사실 올해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들 때문에 혹시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소홀히 해 오지는 않았는지 살펴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충실히 우리들이 지켜나가고 행해야 할 것은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삶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실천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피신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국내 실향민을 환대하고,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기

2020년을 물들인 비극적 사건들을 감안하여, 저는 국내 실향민을 위한 이 담화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때문에 불안하고 내쳐지고 소외당하며 거부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이에게도 전합니다.

헤로데 시대에 강제로 피신을 떠나야 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에서 굶주리시고, 목마르시며, 헐벗으시고, 병드셨으며, 나그네이시고, 감옥에 갇히시어 도움을 청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마태 25,31-46 참조)

실향민은 우리에게 이처럼 주님과 만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네 동사,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로 사목 과제에 응답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동사들에 더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 해당하는 여섯 쌍의 동사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 여섯 쌍의 동사들은 각각 상관관계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앎은 타인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민과 실향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가까이 다가가기에 필요합니다. 최근 몇 개월간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가르쳐 주었던 이, 가까이 다가가 봉사하는 일은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한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겹옷을 벗고 무릎을 꿇어 당신 손이 더러워져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요한 13,1-15 참조)

화해하기 위하여 귀 기울이기가 필요합니다. 화해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사랑은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바로 겸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청을 통해서만 참으로 서로 화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버림받은 수많은 이들과, 우리 자신과 화해할 기회를 갖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끊임 없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과도 화해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장하기 위하여 함께 나누기가 필요합니다.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가 같은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는 깨달음을 통하여,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명약관화해졌습니다. 참으로 성장하려면, 예수님께 보리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내어 드린 그 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다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발전하기 위하여 참여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다면, 우리는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에 능동적으로 이바지하게 해야 합니다. 감염증 확산은 우리에게 공동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건설하기 위하여 협력하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건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 임무이기에, 우리는 질투나 반목이나 분열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협력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하고 태초에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습에 더욱 맞게 만들어 나가려면,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국제 협력과 전 세계적 연대와 지역적 책무 이행을 보장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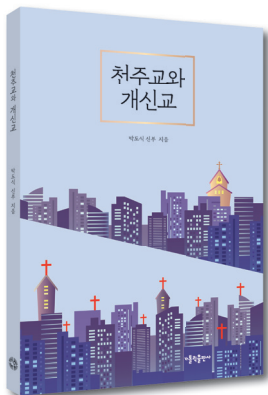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개신교?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천주교와 개신교**

“가톨릭은 마리아 교회인가? 가톨릭은 우상을 숭배하는가?”

가톨릭 교회에 관한 오해를 명쾌하게 풀다!



박도식 지음 | 140면 |
10,000원 | 가톨릭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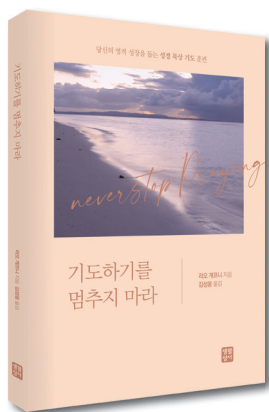
천주교와 개신교.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두 종교는 확연히 다른 가르침을 전한다. 특히나 개신교 신자들은 이따금 가톨릭 신자들이 마리아교를 믿는다고 하거나 성모님이나 예수님 상을 정성스레 모시는 것을 보고 우상 숭배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가톨릭출판사에서 이러한 오해를 잘 설명해 주고 싶어 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해 대구대교구 故박도식 신부의 《천주교와 개신교》를 개정하여 출간했다. 가톨릭 교회에 관한 핵심적인 궁금증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이 책은 1980년 출간 이래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아 왔지만, 성경과 교회 용어 등을 현대에 맞춰 새롭게 수정했다. 특히 흥미롭게 이어지는 대화체로 구성되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가톨릭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명확해 교리를 잘 모르는 예비 신자도 편하게 볼 수 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을 돕는 성경 묵상 기도 훈련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

하느님과 대화하는 '성경 묵상 기도'

기도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의 든든한 조력자



리오케프니 지음 | 김성웅 옮김
232면 | 13,000원 | 생활성서사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당 같은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를 찾거나 묵주를 손에 들거나 기도서에 있는 '올바른' 기도문을 드려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 다시 말해 '하느님과의 대화'가 바람직한 기도일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경 읽기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모두 성경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곧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된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라》는 성경을 통해 하느님과 직접 대화하며 깊이 머무는 법을 알려 주는 '성경 묵상 기도' 안내서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로 우리를 이끈다.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바로 이 책이 그 훈련을 도와줄 것이다.



인언민 마르티노 (1739~1800년)

1737년 충청도 덕산 주래(현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인언민(印彦敏) 마르티노는 온순하면서도 깨끗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또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상당한 학식도 쌓게 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 알고 지내던 황사영 알렉시오를 만나면서 천주교 신앙을 접하게 되었고, 이내 그에게서 교리를 배운 뒤 한양으로 올라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 인 마르티노는 장남 요셉을 신부 곁에 남겨 두었으며, 얼마 뒤에는 차남을 유명한 교우의 딸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공주로 이주하였다. 이때 친척들이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그는 이주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친척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1797년에 시작된 정사박해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인 마르티노는 공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천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뒤 옥으로 끌려갔다. 그런 다음 청주로 이송되어 심한 고문을 당하였으며, 감사의 명에 따라 다시 그의 고향을 관할하던 해미 관장 앞으로 이송되었다.

해미에 있는 감옥에서 인 마르티노는 젊은 이보현 프란치스코를 동료로 만나게 되었다. 이후 그들은 언제나 서로를 권면하면서, 갖은 형벌과 문초와 유혹 아래서도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어쩔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언민도 이보현과 같이 때려죽이랴’는 명령을 내렸다.

형리들은 관례에 따라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음식을 인 마르티노에게 갖다 준 뒤, 그를 옥에서 끌어내 매질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엄청나게 큰 돌을 들어 그의 가슴을 여러 번 내리쳤다. 이내 그의 턱이 떨어져 나가고 가슴뼈는 부서지고 말았다.

결국 인언민 마르티노는 이러한 형벌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때가 1800년 1월 9일(음력 1799년 12월 15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마지막으로 매질을 당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되뇌었다고 한다.

“그렇구 말구.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께 바치는 거야.”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황용식(타대오)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황용식(타대오, 향년 66세) 신부님께서 지난 9월 18일 (금)에 선종하셨습니다. 9월 21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하였으며 신부님의 묘소는 군위 성직자묘역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예제 18,25-28	제 2 독 서	필리 2,1-11	복 음	마태 21,28-32.
화 답 송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장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산골(散骨)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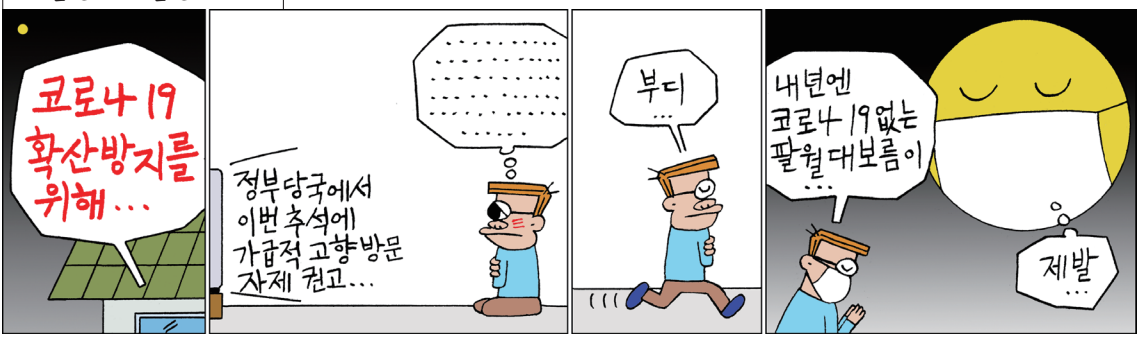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차례와 성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부 추모공원에서는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하던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지금은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전통적으로 매장을 장려해왔지만 사회변화에 따라 화장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Ad resurgendum cum Christo)」를 통해 화장한 유골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교회에서는 사목자료 **산골(散骨)에 관한 질의 응답**을 승인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주교에서는 11월 위령 성월까지 장례, 특히 화장과 유골보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연재합니다.

※ **산골(散骨)이란?** 화장 후 납골 외의 방법에 의해 고인을 모시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강 또는 산 등이나 지정된 산골장소 및 시설에 뿌려 보다 빠르게 자연에 회귀시키는 방식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교리에 반대되는 행위로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정하고 건강하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9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 미사일정은 교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10.11(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010)9937-0901

교육 | 모집 | 기타

부모 영성훈련 프로그램

일시: 10.8(목)~11.5(목) 10:30~12:00

장소: 범어 바오로당
회비: 12만원 / 선착순 10명
진행: 영덕 수녀
(심리학박사, 가족상담전문가)
문의: (010)2976-1610

김종숙 요안나 도예 성물전 (볼리비아 도시락 후원 기금마련)

일시: 10.12(월)~24(토)
장소: 남대영기념관 빠리니홀
문의: 629-1117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 9.23(수) 9:00~28(월) 18:00
모집: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성직자추천전형 등 8개 전형
문의: 권혁민(루카) 입학사정관,
(051)510-0705

2021학년도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노비파스 음악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시: 10.16(금)~26(월)
대상: 사회복지(양육)시설 거주 여학생
인원: 2021학년도 중학교 1학년 12명
문의: (031)584-1130 / (070)8953-1009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30(4주, 6주, 8주)
설명회: 10.24(토) 14:00
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10.19~21 / 10.30~11.1 / 11.13~15
장소: 제주성지 7곳(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대구 평신도」 원고 모집 (2020/2021, 통권 33호)

- 주제 : 개인 : 1) 치유의 해, 나의 체험과 성찰 2) 자유마당 (시, 수필, 여행기 등 장르 무관)
본당 : 치유의 해, 본당 공동체 하나되어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
성경완독운동 참가자(교구 평신도위원회 주관 완독운동 참가자에 한함)
- 원고분량 : A4 (10포인트) 2~4장
- 제출마감 : 10월 31일(토)
- 보내실 곳 : samok@dgca.or.kr 또는 dgsamok@hanmail.net
- 문의 : 사목국 평신도담당 053-250-3057 / 대구평신도 편집위원장 이영구 010-3508-5885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평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독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일 선 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왼쪽방향 ♥
공양진홍주차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053-255-2211**
前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남역(청라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성물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번더 맞은편)
☎ **053)942-882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동한(가롤로) 신부
1983년 9월 28일
- 이성만(이냐시오) 신부
1976년 10월 3일

교육 | 모집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수시 모집
모집인원: 3,017명(수시 2,635명)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약 250억원
학생의 미래에 투자하는 대학
가톨릭추천전형 31명 / 문의: 850-2580

2021학년도 백합어린이집 입학 설명회
코로나19 확산으로 소그룹으로 진행하니
입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어린이집으로 문의 후 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0.12(월)~23(금) 10:30~11:30
14:00~15:00 / 문의: 256-6862

2021학년도 대건고 입학 설명회
일시: 10.24(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입학 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10월 박종현(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7~11.11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4층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5623-5451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직원(정규직) 채용
분야: 사무직(1명), 조리직(1명)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림
마감: 10.30(금) 14:00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군위묘원 성묘 안내
추석 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추석을 전
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고, 성묘
후 귀가 시, 일방통행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11.1.1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 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분묘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의 주소
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구청 관리과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구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봉안당 입실 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출입 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필수
방명록 작성 및 발열검사 적극 협조
실내 봉안당 한 호실 내 2가족 이상
입실금지 /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교구 법원 공식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양상숙(모니카)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
(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색을 띄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빌딩 500m

난청·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신속 확장 이전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시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영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충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신속 확장 이전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정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장윤제 연합치과

뉴욕대학교 임플란트과 임상교수
원장 장윤제(바르나바)

대구은행 본점 맞은 편
T. (053)752-9797

치질 내시경 건강검진
(위·대장)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산격시장 앞 053-959-7175
010-9597-7175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